영역

1	③	2	④	3	⑤	4	③	5	③
6	③	7	⑤	8	④	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①
21	④	22	②	23	④	24	④	25	④
26	②	27	⑤	28	②	29	①	30	④
31	③	32	⑤	33	③	34	①	35	④
36	①	37	②	38	③	39	④	40	③
41	③	42	②	43	②	44	①	45	①
46	⑤	47	⑤	48	⑤	49	②	50	④
51	②	52	⑤	53	①	54	①	55	⑤
56	②	57	②	58	③	59	①	60	⑤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제시하는 정보를 듣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제 여러분은 '주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사(여) : 영화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 좌석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감상을 위한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극장 관계자들은 보통 스크린으로부터 2/3 지점의 정중앙 좌석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음향을 조절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극장 관계자들이 말하는 좌석은 음향만을 고려한 자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극장에서 음향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 관람의 좋은 자리, 흔히 말하는 로얄석은 관람 시간 내내 목이 덜 아프고 눈이 덜 피곤한 자리죠. 그렇다면 맨 앞좌석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목이 아플 테니까요. 그럼 뒷좌석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극장에서의 로얄석은 모든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모두 다른 로얄석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극장에서 로얄석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의 '주시(主視)'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시(主視)'라는 말은 '주로 사용하는 눈'이란 뜻이죠. 즉,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주로 어느 쪽 눈을 사용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오른쪽 눈을 이용해 주위의 사물을 보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의 주시는 오른쪽이 됩니다. 그렇다면 극장의 로얄석을 찾을 때 주시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시가 오른쪽인 사람이 스크린을 바라볼 때에는 왼쪽보다 오른쪽 부분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시가 왼쪽인 사람은 왼쪽 부분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화를 좀 더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시와 반대되는 쪽으로 치우쳐 앉아야 스크린 전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유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시가 오른쪽이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의 로얄석, 즉 영화 감상을 위한 여러분만의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강의 내용 중 스크린으로부터 2/3 지점(④)이 극장 관계자가 말한 가장 좋은 자리이다. 그러나 이는 음향만을 중시한 것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맨 앞줄 역시 목 근육에 부담을 주는 좋지 않은 자리라는 설명이 있다. 때문에 ①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③과 ⑤ 중 주시(主視)가 오른쪽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주시의 반대편 자리이다. 그러므로 주시가 오른쪽이라고 했으므로 좌석은 왼쪽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 [출제의도] 일화를 듣고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간디의 일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69년 인도에서 출생한 간디는,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비폭력주의자로 알려진 간디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간디가 여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이 음악 및 음향 효과)

간디가 먼 지방에 가기 위해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을 막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열차의 승강대를 딛고 올라서던 간디는 실수로 그만 한쪽 신발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신발을 주우려 팔을 뻗었지만 열차는 이미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만 포기하고 객실로 들어가야겠네."

그런데, 간디는 얼른 다른 쪽 신발을 벗어 들더니 금방 떨어뜨렸던 신발을 향해 세게 던졌습니다.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멀쩡한 신발 한 짝을 버리는가?"

그러자 간디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향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

간디에 대한 설명 중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일화에 적용시켜 인간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배(남1) : 이 사람, 정말 오랜만이네. 저녁이나 같이 하지?

후배(남2) : 예, 선배님. 좋죠!

선배 : 그래, 그렇다면 갈매기살 어떤가? 이 근처에 갈매기살 잘 하는 집이 있는데…….

후배 : 아니, 갈매기살이라니요? 선배님은 갈매기 고기도 드십니까?

선배 : 뭐? 이 사람 농담도(함께 웃음). 하긴, 자네 말마따나 갈매기살이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갈매기 고기라고 오해할 만도 하지.

후배 : 그래도, 요즘은 갈매기살이 돼지고기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어요.

선배 : 자네 갈매기살이 돼지고기의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

후배 : 글쎄요. 그러고 보니, 자주 먹기는 했는데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고 먹은 셈이네요.

선배 : 사람이나 짐승의 뱃속에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다네.

후배 : 아래 위로 움직여서 숨쉬는 것을 돕는 거 말씀이죠?

선배 : 그렇지. 뱃속의 가운데를 막고 있다고 해서 한자어로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배와 가슴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어. 이 횡격막은 다른 말로 '간막이' 또는 '가로막'이라고 해. '가로막'과 '살'자가 합쳐져 '가로막의 살'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로매기살'로 불리다가 결국은 '갈매기살'이 되고 말았지. '간막이살' 역시 '간매기살'로 불리다가 '갈매기살'이 된 거야.

후배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갈매기살이 처음엔 먹는 사람이 없어 그냥 버려졌다고 하던데요?

선배 : 그래. 고기가 온통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다가 질긴 껍질로 덮여 있으니 누가 그 질긴 걸 고기라고 다 듣어 먹었겠나? 그런데 누군가가 버려지다시피 하던 그것들을 불에 익혀서 먹어 보았는데, 그 맛이 색다르더라는 거야.

후배 : 선배님, 그러고 보니 갈매기살 박사님이십니다! (함께 웃음)

횡격막을 다른 말로 '간막이' 또는 '가로막'이라했으므로 간막이와 가로막은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다른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 [출제의도] 뉴스 내용에 적절한 속담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남) :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상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한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 상사에게 이런 속담 들려주고 싶다.'는 주제로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현아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여) : 예,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 상사들이 잘 들어보아야 할 듯합니다.

먼저, '직장 상사에게 이런 속담 들려 주고 싶다.'는 여론 조사 5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빗댄 거죠. 다음, '원님 덕에 나발 분다.'가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위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자신의 초년 시절은 잊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사를 꼬집는 얘기인데요, '시지프스의 꿈'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은 "직급의 상승은 뇌하수체 호르몬을 자극해 급격한 기억 상실증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말로 이 속담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누리꾼 홍길동 씨는 "직장 상사들에 대해 좋은 말은 거의 없고 모두 성토하는 말들뿐인 것 같다."며 "직급이 높다는 것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일방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상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부하는 부하로서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 좀 더 성숙하고 활기찬 직장 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정현아였습니다.

자신의 초년 시절은 잊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사라는 내용, 직급의 상승이 기억 상실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지난 시절의 어려움을 잊고 지낸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속담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인터넷 봉사 활동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민서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남)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봉사 활동과 일반 봉사 활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김민서 : 물론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인터넷 봉사 활동은 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사이버 공간이 대신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사회자 : 결국 온라인이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과 봉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김민서 :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봉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봉사를 실천하게 되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원하지만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에서는 좀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사회자 :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김민서 : 우리 '아름다운 세상' 가입 회원들은 매주 하루를 정해 사회 복지 시설을 찾아갑니다. 청소, 간식, 학습, 장애인 외출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요.

사회자 : 회원들의 연령층은 어떠한가요?

김민서 : 1년 동안 우리 모임을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14,000여 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했는데 10대의 참여 비율이 22.4%, 30대가 18.8%, 40대가 20.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 사회 활동이 많고 경제력이 있는 3~40대보다, 10대들의 참여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의외네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봉사 활동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서 : 봉사는 마음입니다. 경제력과 시간이 있어야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인터넷 봉사 활동은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또 도움을 받기 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정말 좋은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점차 확대되어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들려주는 내용에서 빠져 있는 내용은 인터넷 봉사 활동의 장애 요소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6.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인터넷 봉사 활동을 홍보하는 문구 작성은 들려주는 정보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에는 봉사 활동과 사회 통합 구현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쓰 기 ****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보고 글쓰기 주제를 연상하는 문제이다.

그림의 분재는 멋있는 모습으로 남자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지만, 이길원의 <분재>에서 분재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겉보기와 달리 고통스러운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를 교우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친구들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아픈 속마음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어울린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글감을 정리하여 주장의 논거를 찾는 문제이다.

(나)는 청소년들의 팬 클럽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④는 긍정적인 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의도] 우화를 이용한 다양한 글쓰기 계획과 그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산골 남자는 조각상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인다. 이를 현실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 전통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도시 남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수도 있다. 도시 남자는 산골에 처박혀 있는 돌덩이를 '거장의 경이로운 예술 작품'으로 선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같은 상황은 싼 값에 구매한 물건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부 장사꾼의 부정적 행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⑤는 기업인들의 정당한 경제 행위이지, 부정적인 장삿속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이다.

①, ③은 관점이 다르고, ②, ⑤는 비유가 없고 관점도 다르다. ④는 무력의 비유인 칼과 문화의 비유인 꽃이 쓰이고,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1. [출제의도] 개요 작성의 문제점을 찾는 문제이다.

수목장의 도입 배경은 '수목장의 역사'라는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2. [출제의도] 표준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덩굴, 넝쿨', '소고기, 쇠고기', '늑장, 늦장', '가물, 가뭄' 등은 복수 표준어이다. 그러나 '우뢰'는 비표준어로, '우레'로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3.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다.'는 '설레다'가 기본형이므로 '설레는'이 어법에 맞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4. [출제의도] 서법에 맞는 문장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령법의 문장에서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예쁘다, 영원하다, 편안하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서 명령법의 서술어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 (가) 윤동주, '길'
(나) 신경림, '동해 바다'
(다) 정희성, '길'

15.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 (나), (다) 모두 현실적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소재로 삶의 자세나 삶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살피고 있다. (가)는 내면적 자아에 대한 탐색, (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반성, (다)는 지향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가)에 쇠문을 굳게 닫아 건 돌담, 그림자 드리워진 길 등의 표현을 통해 부정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의 경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징적 표현 대신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하늘'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과 대조된 소재로, 화자를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나)의 '동해 바다' 역시 잘아지고 굳어버린 화자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소재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남에게는 너그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화자에게 '동해 바다'는 본받고 싶은 대상이다. (다)의 '하늘'은 힘겹고 노여운 현실 속에서 그나마 고개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으로, 화자를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7. [출제의도] 주제 접근 방식 및 표현 방식이 유사한 작품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우선 (가)의 주제는 본질적 자아의 탐색이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그 탐색 과정을 수단-방법-대상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거울' 역시 본질적 자아의 탐색을 위해 거울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거울 속의 나와 만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잃다', '길', '돌담' 등의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아에 대한 탐색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의미의 긴밀성을 높이고 있다. (나) 역시 '많다', '보다', '없을까' 등의 종결 어미가 시행의 마지막에 반복되면서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의 '어쩌랴'는 시조 종장 감탄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로 시상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나), (다)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는 세 시 모두에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9. [출제의도]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창조적 글쓰기를 하는 문제이다.

(가)~(다) 모두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다루고 있

으므로, 수필의 주제 역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과거,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 작품 모두 평화와 자유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기술 **

□ 출전 : 과학동아, <물 에어컨>

20. [출제의도] 주어진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본문 내용 중 기존의 에어컨과 물 에어컨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문제이다. 냉방 방식은 물 에어컨이 기화이고 기존의 에어컨은 기화와 액화의 반복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문맥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는다.'는 의미의 단어는 '착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 확인 확인하는 문제이다.

축축하고 더운 공기(①)가 습기 제거 장치를 통과하여 덥고 건조한 공기(②)로 바뀐 후 이 공기가 다시 그물망을 통과하여 차고 건조한 공기(③)가 실내로 유입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3. [출제의도] 기술 개발자의 자세에 대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이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관찰함으로써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 개발자의 자세도 그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박씨전'

24. [출제의도] 감상의 관점에 따른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소설에서는 인물, 시점, 대화의 사용, 어휘, 문체 등이 내적 질서를 이루는 요소이며, 이에 주목하여 감상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다. ④는 작가에 주목한 관점으로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5.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계화는 장수 용홀대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박씨 부인의 여종임을 밝히며, 곧 자신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당당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심리를 자극하며 비웃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글의 의미와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계화와 용홀대의 대결 장면으로, 서로 승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서로 어금지금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의 뜻을 지닌 '백중지세'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7. [출제의도] 글감의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상황에 활용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시름 많음을 탄식하며 푸른 풀과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적 태도와 일치하는 소설 속 등장 인물의 성격을 찾아 그 인물이 쓸 글에 이용해야 한다. 박씨 부인은 초당에 앉아 시름 겨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부인을 둘러싼 상황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현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부인이 전쟁 등의 인간사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 및 배경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을 살펴볼 때, ①의 박씨 부인은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지 않으며, ③의 장졸들은 비통함과 결의보다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④의 용골대의 표정은 차분함보다 급한 모습이 더 적절하다. ⑤의 초당 역시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보다 정결한 분위기가 어울린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언어 **

□ 출전 : 이현주, <한국인을 닮은 한국어>

29. [출제의도] 글의 논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한국어가 상황에 따라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축약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는 한국인들의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예"와 "아니요"의 대답이 영어와 다른 것은 한국인들이 대화에서 서구인들과 달리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어가 지닌 표현 방식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한 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0. [출제의도] 제시된 단어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의 문맥적 의미는 '몸에 배어 버릇이 되다.'이다. 그러나 ①의 밑줄 친 단어는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여 지다.'의 뜻이고, ②의 밑줄 친 단어는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의 뜻이고, ③의 밑줄 친 단어는 '돈 같은 것이 헤프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되다.'의 뜻이고, ⑤의 밑줄 친 단어는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의 뜻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1. [출제의도] 언어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묻는 문제이다.

한국어를 '상황 중심 언어', '상황 의존적 언어'라고 한다. 이는 한국어에 한국 사람의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에 언중(言衆)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는 ③이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2. [출제의도]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와 ⓓ는 한국어의 문장 생략을, ⓑ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다보니 생겨나는 비논리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는 문맥으로 볼 때, 화자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답하는 것이므로 '예'라고 해야 옳다. 이는 제시문에 소개된 예문에서 "이것이 연필이 아닙니까?"라고 물을 때 "예"라고 답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예, 연필이 아닙니다'의 뜻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⑤의 설명은 '반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다. 게다가 ⓔ는 반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사회 **

□ 출전 : 최연구, <콘텐츠 강대국 만들기>

33.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이 글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미디어가 없으면 콘텐츠는 문화 예술적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논점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4. [출제의도] 전개 과정 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미디어라는 형식의 중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다섯째 단락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5. [출제의도] 글을 읽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원작 만화를 게임이라는 미디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다. 콘텐츠보다 미디어가 문화 산업의 관건이 된다는 글쓴이의 관점으로 볼 때, 콘텐츠 개발이 문화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더욱이 <보기>는 예술적 소재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6.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문화의 내용보다는 미디어라는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형식단락에 보면 '콘텐츠를 문화 예술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미디어'라고 언급하면서 미디어라는 형식에 치우쳐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 김유정, '봄봄'

37. [출제의도] 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점순은 '나'를 졸라 장인에게 대들게 하더니, 장인이 곤경에 처하자, 나를 배신하고 장인 편을 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장인을 넝 아래로 떠밀은 '나'의 행동은 장인이 '나'를 지게막대기로 내려치자, 화가 치밀어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즉, 장인을 힘으로 굴복시켜 뜻한 것을 이루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9. [출제의도] 소설 속의 발화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나'가 장인을 넝 아래로 굴러뜨린 것에 대한 장인의 반격은 '세상이 팽그르 돈다', '죽나 보다'고 할 정도로 무척 강력하였다. 이 상황에서 '나'가 장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종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0. [출제의도] 바꿔쓰기의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원작은 '나'의 기대를 벗어난 점순이의 행동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끝난다. 그런데 시나리오에서는 점순이가 '나'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장인이 태도를 바꾸어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중심 갈등이 해소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1. [출제의도] 비평의 관점을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작가는 데릴사위 제도의 문제점이나 농촌의 갈등 문제를 해학적 웃음 밑에 숨겨 놓았을 뿐,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과학 ****

□ 출전 : 이은희, <과학 블로그>

42.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뇌의 발달과 두개골의 구조를 연결시키는 학문이 골상학인데, 이 글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은 인과 관계가 부족한 주장이므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실험 과정과 결론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페로니의 실험은 뇌와 인간의 마음이 관련 있음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페로니는 뇌가 신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뇌량이 손상된 환자에게 물을 뿜었다가 다시 뽑아내는 실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깃들인 곳이 뇌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때, 실험 목표가 뇌량의 기능 파악이라는 것은 당시의 과학 발전 단계에도, 페로니의 문제 설정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4.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의 개념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골상학을 유사 과학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골상학이 뇌의 각 부위와 인간의 마음을 연결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으나 결국 그 주장은 과학적 인과 관계가 부족한 잘못된 이론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유사 과학은 과학처럼 보이지만 인과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학일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5. [출제의도]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빈 칸에 적절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골상학은 뇌의 여러 기관이 두개골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개골을 살피면 그 사람의 성격, 특별한 성향 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용불용설에 의해 설명하는 구절이 빈 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의 문장이 '따라서 두개골의 울룩불룩한 모양은~'이므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움푹 들어간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6. [출제의도] 글의 완결성을 위해 보완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간의 마음이 신체의 어느 부위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뇌에 관한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는 골상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뇌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향으로 볼 때, 이후 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가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인문 ****

□ 출전 :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 <그리스 철학사>

47. [출제의도]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랑과 자유는 모두 긍정적 성향이며, 같은 인간에게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성향이다. 분배와 성장 역시 이와 유사한 관계를 이룬다.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인 분배와 성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둘 다 필요한 긍정적 요소이다. 또한 경제 정책을 수립할 경우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8. [출제의도] 문맥 속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시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자유의 인간형이 표시된 문단의 끝에서 '자유'란 평화로운 공간과 새로운 환경을 추구하는 욕구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나타난 시가 '엄마야 누나야'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9.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정보를 재구성하는 문제이다.
좌표에서 현자의 영역은 자유와 사랑이 모두 '+'인 곳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0.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대입하는 문제이다.
벨라비스타는 사람의 성향을 유형화하여 좌표에 그려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한 것은 아니며, 신과 대비된 인간의 본질을 말한 것도 아니다. 그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4가지로 유형화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복합 지문 ****

□ 출전 : (가) 작자 미상, '청산별곡'
(나) 윤선도, '견회요'
(다) 최서해, '담요'

5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다)의 서술자 역시 궁핍함에서 오는 비참함과 삶의 고달픔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2.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창의적 글쓰기를 해 보는 문제이다.
⑤에는 '누룩 냄새'라는 감각적 시어와 '꿈을 접어 버리네'라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3. [출제의도] 주어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A]의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새'에 이입하고 있다. [B]의 화자는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외기러기'에 이입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4.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중심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에서 '담요'는 궁핍하고 불우한 현실에서 겪었던 아픈 추억을 회상하게 해 주는 소재이다. '담요' 때문에 겪었던 딸에 관한 가슴 아픈 추억과 그리운 가족을 떠올리는 매체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5.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정서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에도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6. [출제의도] 주어진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다)와 <보기>는 모두, 현실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살아가는 현실적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예술 ****

□ 출전 : 이원복, <한민족의 맑은 심성이 은은히 배인 옛 그림>

5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둘째 단락에서 우리 그림에 중국옷이나 중국화가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 옛 그림을 중국 그림의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기존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ㄱ). 다섯째 단락과 여섯째 단락에서 한국의 옛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ㄴ), 셋째 단락에서 선조들의 옛 그림 감상법을 음악 감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ㄹ).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8. [출제의도] 세부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한국의 옛 그림이 중국 그림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성을 지닌 화풍을 이룩했다는 글이다. '고유색 짙은 미감'이나 '여유와 상상', '조촐함이 주는 자유로움'은 중국과 대비되는 우리 옛 그림의 뚜렷한 특징이고, '수묵 위주의 담채'는 우리 옛 그림의 주류를 이루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리성과 완벽성'은 중국에 비해 우리 그림이 떨어지므로 우리 그림의 특징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의 앞부분 설명에서 글쓴이는 유명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연주하면서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우리 선조들은 거장의 그림을 눈이 아닌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감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6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A]는 한국의 옛 그림이 중국 그림의 영향을 받았지

만, 능동적인 취사 선택을 통해 고유색 짙은 화풍을 이룩했다는 설명이다. <모견도>의 화가 이암 역시 남송의 모익에게 화법을 배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분위기의 동물화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